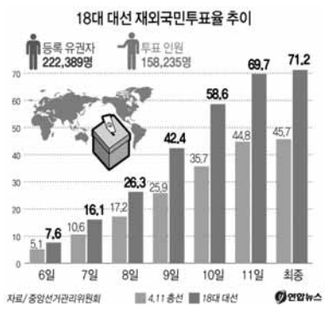
■ 70%대 재외국민투표… 누구에 유리할까

朴 "모국 안정적 변화 원해"
文 "유학생 정권교체 열망"



18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 투표 결과, 예상보다 높은 7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자 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이번 투표율은 4·11총선 당시 재외국민 최종 투표율 45.7%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라며 "재외국민으로서는 첫 대선 투표인데다 대선이 '보수 대 진보' 총력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재외국민의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투표한 유권자는 15만8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오차범위 내 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재외선거 결과가 전체 대선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재외국민 투표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양측 모두 높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선대위원장은 "재외국민은 대체로 모국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편이어서 박 후보에게 기대감이 크다"며 "젊은층도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한 이후로 합리적인 보수성향 유학생을 중심으로 박 후보에게 많이 돌아섰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 캠프 정세균 상임고문은 "재외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적인 투표참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이는 대한민국발전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재외국민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체로 야권 성향이 강한 젊은층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재외선거에서 문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대선의 재외선거인단은 세대별로 20대 23.0%, 30대 26.2%, 40대 25.0%, 50대 13.6%, 60대 10.9% 등으로 20~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낮으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정설이 이번 대선에서도 통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유불리선의 기준을 68~70%로 보고 있다.

대체로 문 후보 측은 재외선거 투표 열기가 국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박 후보 측은 재외선거와 국내선거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원 "임시국회 열어 예산·민생법 연내 처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 임시국회를 소집, 예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금년 내에 꼭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일도 넘긴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이미 정권을 놓아버린 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두 유력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공약에 대해 대선 전까지 심의를 마쳐놓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20여가지 공약이 (두 후보 간에) 겹치는 만큼 이런 예산은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며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의회 황지해 정원·U대회 등 10여건 부활
전남도의회 삭감 예산 85% 살려 상임위 무용론

예산결산특위 심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광주시와 전남도 예산안을 각각 3조4312억8000여만원, 5조6247억원 규모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85%를 예결위에서 줄줄이 되살려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조4355억여원을 심의한 결과 112억6500여만원을 삭감하고 70억5000여만원을 증액해 3조4312억8000여만원을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만 3~5세 아동 무상교육비 608억원 ▲황지해 정원 조성비 4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14억5000만원 ▲버스 장착단속 카메라 설치 2억5000만원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비 30억원 ▲광주 연고구단 활용 스포츠마케팅지원비인 도시브랜드 강화 마케팅 사업비 2억5000만원 등 총 11건의 669억원의 예산을 살려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내년도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던 폴리 디자인사업 추진비 20억 원과 LED조명시범(특화)도시 조성 15억 원 등은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부활되지 못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가 의결한대로 내년도 시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 본예산 중 항목별로 66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증액한 5조6247억원 규모의 '2013년 전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F1 운영비 40억원,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2억원, 영어교육지원금 4억5700만원, 명량대첩 수군함정 건조비 2억원, 홍콩부동산 박람회 1억2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반면, 수산물 종합센터 조성비 등은 4억원이 증액돼 모두 44억1000여만원이 편성됐다. 또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누리과정 사업비 279억원은 전액 되살아났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는 12일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에 장착한 장거리 로켓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촬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사진(위)에는 차량 1대와 트레일러 1대로 보이는 물체가 식별됐고 10일 촬영한 사진(아래)에는 그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北 로켓 발사대서 내려 수리

28개국서 발사 철회 요구

북한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려 수리하는 등 발사 예고기간에 발사를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지금까지 28개국이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위급 외교채널까지 가동, 발사 저지를 위한 막바지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 발사대에 장착했던 장거리 로켓을 다시 내려 분리한 뒤 발사장 인근 조립건물로 옮겨 기술적 결함의 수리에 나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발표한 1단 로켓 조종 발동기 계통에서 기술적 결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기술적인 이유로 로켓 발사 예고기간을 10~22일에서 29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으며 이런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현재까지 28개국이 성명 등을 통해 발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나라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 대선후 한미관계 충돌 가능성"

여야 후보, 오바마보다 대북정책 탄력적
헤리티지재단 '한·일 선거 전망' 세미나

"누가 당선돼도 한·미 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과거와 달리 한·미 관계는 더이상 선거 이슈가 아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개최한 '한국과 일본의 선거 평가' 세미나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양국의 대북 정책 조율 문제에 대한 각자의 전망을 내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모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더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내놨다"면서 "향후 양국 간 충돌(conflict)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후 한·미 관계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로 북한의 행동, 차기 한국 대통령의 대북 대화정책 방식과 속도, 미·중 관계, 미·일 관계 등을 꼽았다.

그러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한국 대통령선거는 중도로 수렴되는 양상"이라면서 "한·미 동맹은 이번 선거에는 주된 이슈가 아니다"라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가 한·미 동맹에 대한 회의론을, 2002년 선거 때는 노무현 후보가 반미 주장을 내놨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후보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후보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플레이크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는 접근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으나 클링너 연구원은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박 후보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통령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새정치 목포 국민연대' 발족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목포 국민연대'가 11일 발족했다. 목포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목포 국민연대'(이하 목포연대)는 이날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참여 등 5대 시민행동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목포연대는 ▲하루 7번, 7명에게 연락해, 7표 확보하기(777운동) ▲SNS로 투표참여 독려 및 국민후보 알리기 ▲가족·친지·지인들과 투표참여 약속 맺기 등 5대 지침을 발표했다.

목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결단과 양보만으로 야권단일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복지' '평화'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일제히 행동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박삼용 광산구의원 朴 지지

광주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이 11일 새누리당에 입당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은 광주지역 민주통합당 소속 기초의원 가운데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화합과 호남의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3선인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했었다.

박 의원은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호남의 정치인 누군가는 나서서 희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납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화순,담양,나주,장성,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급매 상가/원룸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월세794만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투룸 4개
▶토지면적 : 330.58㎡ (100p)
▶건축면적 : 737.19㎡ (223p)
▶매매가 6억 9천(융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융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년수익율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 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병원부근
▶토지 89P 건물 233P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4억9천 융자 2억3천 5백 실투자액 2억5천5백
문 의 : 011-684-3886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